

도교육청, 새학년 교육과정 세움주간 운영

이달 중 학교별 자체계획 수립·3일 내외 운영 권장... 3월 새학기 안정적 교육활동 추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월 한 달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도교육청은 새학년 사전 준비를 통한 3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직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2021년 새학년 교육과정 세움주간 운영 계획'을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에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민주적 협의에 따라 2월 중 3일 내외의 기간을 정해 새학년 교육과정 준비

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2월 수업일수 최소화를 통해 새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 조정 운영을 권장했다.

주요 내용은 교과·교사별 교육과정 계획 수립,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를 위한 준비, 전임 교직원을 포함한 교육과정 워크숍 및 공동체 토론회, 민주적 소통을 통한 업무분장, 기초협력 협의체 구성 및 진단 협의, 원격수업 교육 준비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새학년 준비기간을 활용해 등교·원격 혼합수업, 비대면 상황 교육활동 등에 대한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각종 정책 및 기본계획·지침을 조기에 안내했다. 2021년 각 부서별 기본계획을 포함한 교육과정 워크숍 및 공동체 토론회, 민주적 소통을 통한 업무분장, 기초협력 협의체 구성 및 진단 협의, 원격수업 교육 준비 등이다.

15일 학교교육과, 16일 교육혁신과, 17일 인성건강과, 18일 민주시민교육과, 19일 미래인재과 순으로 진행되며 부서별 주요 정책사업과 학교교육계획 수립시 반영돼야 할 내용들을 전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이 새학년 학교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3월 새학기에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간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와 SK브로드밴드가 IT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교육 강화 '협력'

전북대-SK브로드밴드, IT 환경개선사업 추진 협약

전북대학교와 SK브로드밴드가 IT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정을 통해 전북대 스마트정보화추진단은 끊임 없이 빠른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 통신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전화서비스 및 교환 시설을 새롭게 구축하고 무선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숙사 생활관 통신설비도 기업 사무실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교내 IT 인프라를 고도화 한다.

특히 비대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교육전산망(KREN) 회선을 증속

한다. 언택트 환경 아래 학생들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용량 문자메세지 발송 관리 기능도 제공한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대학 구성원에게 고품질의 IT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시대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정보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유창원 고교본부장은 "전북대학교가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통신 인프라 구축 및 IT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3~10일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 접수

전북도교육청이 2021년도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을 시행함으로써, 명예로운 사회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은 3일부터 10일까지다. 명예퇴직 예정일은 3월 31일이다.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다만,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 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도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3월 12일까지 명퇴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하되, 예산 부족시 우선 순위(상위직→장기근속 공무원)를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한편 명예퇴직자로 결정되면 퇴직과 동시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다. 또 명퇴자로 선정된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심사 후 특별승진임용도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지난 1월 29일자로 부처장급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한 것을 비롯해 2월 1일자로 부총장과 처장급 보직교수를 임명했다. 사진은 김 총장이 보직교수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전북대의 '따뜻한 동행' | 김동원 총장, 2기 체제 이괄 보직교수 임명

김동원 총장을 보좌할 2기 집행부가 꾸려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자로 부처장급 보직교수 인사를 단행한 것을 비롯해 2월 1일자로 부총장과 처장급 보직교수를 임명했다.

이날 김 총장은 이들에게 각각 임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2년 간 대학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원 총장 2기 체제를 이끌 부총장급에는 교학부총장에 이재백 교수(의대 의학과)를 비롯해 연구부총장에 조기환 교수(공대 컴퓨터공학부), 대외협력부총장에 최백렬 교수(상대 무역학과)가 각각 임명됐다.

또한 처장급에는 교무처장에 양규혁 교수(상대 회계학과), 학생처장에 김남수 교수(수의대 수의학과), 기획처장에 정용재 교수(공대 전자공학

부), 산학협력처장에 조재영 교수(농생대 생물환경화학과), 입학본부장에 주상현 교수(사회대 행정학과), 국제협력본부장에 안문석 교수(사회대 정치외교학과), 혁신교육개발원장에 실근수 교수(인문대 일본학과)가 각각 보직을 맡게 됐다.

또한 부처장급 보직 인사에서는 교무처 교원인사부처장에 이태한 교수(공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무학사부처장에 손정민 교수(자원·에너지공학과), 학생처 학생지원부처장에 진공용 교수(의대 의학과), 취업지원부처장에 한동욱 교수(자연대 스포츠학과), 기획처 기획예산부처장에 이상노 교수(상대 회계학과), 성과관리부처장에 김현중 교수(자원·에너지공학과), 공간기획부처장에 김정문 교수(농생대 조경학과), 입학부처장에 채연주 교수(상대 경영학

과), 국제협력본부장에 심재우 교수(사범대 영어교육과), 언어교육본부처장에 양효령 교수(법정원 법학과), 홍보실장에 신병수 교수(의대 의학과), 발전지원부처장에 심관섭 교수(농생대 동물생명공학과), 대학원 부원장에 김병석 교수(수의대 수의학과), 산학협력처 산학협력부처장에 류시형 교수(공대 기계공학과), 산학진흥부처장에 황운중 교수(상대 무역학과), 연구처 연구진흥부처장에 이승재 교수(자연대 화학과), 연구지원부처장에 나석인 교수(유연인쇄전자전문대학원), 연구윤리감사실장에 양기진 교수(법정원 법학과), 혁신교육개발원 HRC 부원장에 이경열 교수(치대 치의학과)가 임명됐다.

한편 신입 보직 교수들은 오는 2021년 1월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고교생 대상 '온라인 캠퍼스 진로체험' 운영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고등학생 대상 '온라인 캠퍼스 진로체험'과 학부모 대상 '온라인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정과 자기주도적인 학습 설계를 돕고 있다.

지난 1월 한달 간 진행된 '온라인 캠퍼스 진로체험'은 학과별 교수진, 커

리큘럼, 취업 분야 등을 소개하고 고등학생들이 학과와 대학 생활에 대해 갖고 있는 궁금증을 전주대 재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미리 배송된 학과체험 실습 재료를 갖고 학과 수업을 미리 체험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연합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창업캠프' 성료

전주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는 최근 전북지역 대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창업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에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교내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캠프의 주제는 '특!특! 이모티콘 제작 프로젝트'로 이모티콘 제작의 기획부터 제작, 제안까지의 전 과정을 배우고 실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됐다.

학생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실습과 제작을 경험하고 온라인으로는 ▲이모티콘 기획 및 트렌드 특강 ▲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 ▲팁별 아이디어 멘토링 등 단계별 과정에 참여했다.

특히, '저승사자복'의 김영삼 작가, '광복이네' 이광욱 작가, '대충하는 답장' 김규진 작가 등 협업 이모티콘 작가들이 강사와 팀별 전담멘토로 참여해 학습의 만족도를 높였다. 실제 카카오톡 이모티콘샵 등에도 결과물을 제안하는 등의 성과도 거뒀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